

#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Preliminary Research for Empirical Analysis on the Validity of Public Lending Right: Focus on the Comparison between Popular Borrowing Books and Best Sellers

이 호 신 (Hosin Lee)\*\*

### 목 차

1. 여는 말	4.1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4.2 주제별 분석
2.1 공공대출보상권의 개념	4.3 발행연도별 분석
2.2 공공대출보상권의 몇 가지 쟁점	4.4 가격대별 분석
3. 연구의 방법	5. 논 의
4. 연구 결과	6. 닫는 말

### 초 록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로 인하여 도서의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작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주장이 과연 합당한 전제에 바탕을 둔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와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하여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에서의 판매 양상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의 도서 대출의 사회적 의미를 환기하였다.

### ABSTRACT

The public lending right is a system in which government provide compensation to authors on the premise that the sale of books is reduced due to the book borrowing of the library. Recently, the claim that the public lending right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by the author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basic work to demonstrate whether the claims of public lending right are based on reasonable premises. The library's popular lending books and bookstore bestseller books were compared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rough this process, we derive necessary factors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 and suggest follow - up study. In addition, we recalled the social meaning of book lending in libraries.

키워드: 공공대출보상권, 공공대출권, 저작권, 도서관, 베스트셀러  
Public Lending Right, Copyright, Library, Best Sellers

\*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과제임.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조교수(leehs@hansung.ac.kr)

논문접수일자: 2018년 1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8년 1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2월 2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179-202, 2018.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1.179]

## 1. 여는 말

지난 해 한 작가는 자신이 사용하는 SNS에 “도서관에 가서 책 쓰고 있으면 즐겁게 책 읽는 아이들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종종 슬플 때가 있다. 이젠 나라에서 작가들의 생계를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도 돈이 들어가는데 왜 책은 나라에서 빌려주고 작가들은 한 푼도 못 받나?”(파이낸셜뉴스 2017.3.28.)라며 도서관의 도서 대출에 대하여 작가들에게 보상해줄 필요를 제기하였다. 그보다 조금 앞선 2016년 여름에는 월간지 『어린이와 문학』에 도서관의 도서 대출에 대해서 국가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가와 출판업계 관계자들 300여 명의 서명을 담은 성명서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주장처럼 도서관의 도서 대출에 대해서 작가들이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공공대출보상권(Public Lending Right)<sup>1)</sup>이다.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래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과 같이 아직까지 공공대출보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도서관계의 반대를 비롯한 다양한 쟁점들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는 공공대출보상권이 공공도서관

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서가 대출될 때마다 저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료 공공도서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개인에게 보상된 책을 읽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대출보상권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도서관 서비스가 제약되거나 축소되리라는 예상도 반대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예산을 보상금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제정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로 말미암아 도서관 서비스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부담이 온전히 도서관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도 공공대출보상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공공대출보상권의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들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가장 커다란 쟁점은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기본 전제인 ‘도서관의 대출이 도서의 판매 감소를 가져 온다’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서관의 대출에 대해서 저작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실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

1) ‘공공대출보상권’은 국내에서는 ‘공공대출권’이라는 명칭으로 오랜 동안 불리어온 법률 개념이다. 이흥용과 김영석(2015)은 ‘공공대출권’이라는 용어가 대출하는 사람의 권리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용어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흥용과 김영석이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도서관의 대출에 대하여 작가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공대출보상권’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는 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누구도 쉽사리 조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모든 도서관의 대출이 전산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는 기술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다.

이 연구는 공공대출보상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실제로 서점의 도서 판매를 감소시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도서에 대한 구매와 대출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무엇이고, 각각의 요인에 따라서 구매와 대출의 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의 도서 판매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의 시작으로, 도서관과 서점의 실제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주요한 요인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아울러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2.1 공공대출보상권의 개념

공공대출보상권은 저작권의 지분권 가운데 하나로, 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저작물의 판매에

영향을 미쳐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서관의 도서 대출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1946년에 세계 최초로 덴마크에서 도입되었으며, 2017년 현재 34개국이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ttps://www.plrinternational.com>). 그 명칭도 매우 다양해서 영어권에서는 Alan Herbert가 공연권(Public Performing Right)과 유사한 형식으로 제안한 Public Lending Right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도서관보상금(Library Compensation), 도서관 로열티(Library Royalties), 저자의 대출권(author's lending right)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Stave 1981, 569).

공공대출보상권은 우리 법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는 대여권(rental right)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EU의 관련 지침(1992)에 따르면 '대여(rental)'와 '대출(lending)'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대여'는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고, '대출'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및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업적 영역에서의 대여 행위는 대여권의 규율 대상인 반면에 공익적인 목적의 도서관에서의 대출은 공공대출권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두 개념은 적용 영역이 서로 다르고, 규율의 내용과 적용의 방법 또한 구별되는 상이한 용어이다.

대여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상업적인 대여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저작권의

일반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인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권리소진이론(exhaustion theory)'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취득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의 대여와 처분 행위는 저작자의 권리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원리이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본을 처음으로 판매하는 과정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저작자의 배포와 관련되는 권리는 그것으로 소멸되었다고 보는 원칙이다.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조항은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최초판매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적법한 방법을 통해서 취득한 저작물의 파기, 양도, 대여에 대한 결정은 소유자의 권리이지 저작자의 권리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도서관 음반의 판매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저작자에게 새롭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도서관 음반을 중고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대출하는 일은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대여권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대여 행위가 하나의 저작물을 다수가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저작물 판매 감소를 가져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도입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상업용 음반과 상업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만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상업적인 대여가 일상화된 만화에 대해서 대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되지는 않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도서관에서의 대출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여권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저작물을 다수가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대여권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도서관의 대출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문화적인 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라는 점에서 상업적인 대여와는 그 내용과 목적이 다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서관에서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와는 구별하여 공공대출보상권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공공대출보상권은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비영리적인 목적의 무료 대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개개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정부의 예산에서 저작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부담의 원칙인 대여권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이순자 1995, 19-20).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는 공공대출(보상) 권을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음반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 음반이 이용되는 만큼 저작자로서는 판매의 기회를 잃게 되

어 재산적 손실을 보게 되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정현태(2002)는 공공대출(보상)권을 대여권과 유사하지만 구별해야 할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도서관이 소장중인 저작물을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저작물 구매 수요를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되고, 시장에서의 출판물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저작자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출발하는 일종의 보상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홍용과 김영석(2015)은 공공대출보상권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도서관이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는 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이용시키기 위해 열람 및 대출을 통해 제공함에 따라, 일반 독자들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이용한 만큼 서점 등에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게 되어, 저작자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저작자의 저작물 판매 감소분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정의한다. 권재열(2013)은 공공대출(보상)권은 공중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출서비스를 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량의 서적을 빈번하게 대출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판매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출횟수만큼 저작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보전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정의한다. 공공대출보상권은 무료로 이루어지는 도서관의 대출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종의 사용료이며, 저작자에게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비영리적으로 이용되면서 발생하는 손실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대출보상권은 저작권재산권의 일종으로 보상청구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로 바라본다.

정리하면,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도서 등의 대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도서관의 비영리적인 목적의 대출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의 대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대출보상권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도서관에서의 도서나 음반의 대출도 그 이용된 분량만큼 저작자가 판매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저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2.2 공공대출보상권의 몇 가지 쟁점

공공대출보상권은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부담을 줄여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유미숙 2002, 48)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도서관의 도서 대출에까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무료 공공도서관 이념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렇듯 공공대출보상권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공대출보상권의 도입을 주장하는 전제, 즉 도서관의 대출이 실제로 저작물의 구매를 감소시켜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공공대출보상권의 도입의 근거로 이러한 주장

을 펼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의 대출이 저작물의 보다 넓은 독자층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열람기회제공과 전시로 구매 욕구를 촉진하고, 오히려 도서관 자료의 대출이 저작물 유통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이 더 크다고 주장(정현태 2002, 24)하면서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필요성을 반박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은 길게는 몇 주(週)정도로 한정하여 중고의 책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대출자가 도서관에서의 대출로 인하여 얻는 편익은 구매자가 얻는 편익보다는 그 규모가 작다. 이런 축소된 편익에 만족하는 자가 존재하는 한 도서관에서의 대출로 인하여 출판사의 매출이 감소할 여지가 있음은 틀림이 없다(권재열 2013). 그렇지만 거꾸로 도서관이 도서를 널리 알려서 구매를 촉진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도서관을 통해서 저자와 도서를 홍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한다. 일본에서의 한 연구 결과는 도서관의 대출이 1% 증가하면, 오히려 도서 판매액이 0.04%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中瀬大樹 2012) 도서관의 대출이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에서 대출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책을 더 많이 구입한다는 미국에서의 또 다른 조사결과도 있다(Cole 1983, 429). 권재열(2013)은 공공대출권과 관련된 법경제학적 분석에서 출판사가 저작물에 대한 가격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면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저작자의 손실보상이라는 목적으로

공공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이중 부담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도서관의 대출이 반드시 저작자의 수익을 줄이는 것으로 풀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공공대출보상권에 의한 보상은 저작물의 대출 회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이 빈번한 저작자에게 많은 경제적 보상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문화영역에서 조차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야기한다고 비판(이순자 1995; 이호신 2002)하기도 한다. 공공대출보상권은 통상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나 보수를 지급받는 저작권과는 달리 극히 소수의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부담한다(권재열 2013). 다시 말하면 저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다른 아닌 국민의 세금이라는 공공재원을 통해서 집행이 된다. 도서관의 대출횟수가 많은 저작물은 결국 베스트셀러와 같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저작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저자에게 공적 재원을 활용해서 또 다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부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 공공대출보상권의 시행은 가난한 작가들의 후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미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소수의 베스트셀러 작가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할 수 있어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미 충분한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는 작가들에게 저작물 판매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공적 재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 방향이 될

수 없다. 이보다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지만 학술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양서(良書)를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작가들에게는 저작권료(인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 형편으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대출보상권은 작가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상금 액수가 많지 않아서 작가들의 후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도서관의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질적으로 작가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제공하지 못하면서, 보상금 산정과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켜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비록 오래 전의 데이터이고, 보상금의 액수에 따라서 작가들이 받게 되는 혜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공공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고, 도서관의 대출이 개인적인 도서 구매의 거의 열 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된 영국에서도 작가의 절반 정도가 수혜자가 되었고 평균 219파운드(약 38만원)에 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순자 1995, 29). 그렇지만 이러한 비용 지불을 위해서 도서관이 부담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은 결코 작지 않다. 도서 목록이 전산화되었고, 대출기록이 전산으로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의 산정과 지급을 위해서는 결코 적지 않은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 수요 역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그리 크지 않은 영역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자들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되지 않으면서 공적인 행정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온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보상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커다란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 영역의 예산을 잠식하리라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한정된 공공재원을 어디에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으로, 저작자에 대한 보상이 자칫하면 도서관 서비스와 또 다른 공공 부문에서의 문화적 영역을 피폐하게 만드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염려인 것이다.

이 밖에도 공공대출보상권의 시행과 관련된 실무적인 과정에서의 쟁점들도 다양하다. 보상금의 수혜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로 정할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작가, 번역가, 편집자, 삽화가, 출판사 등 도서의 출판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가운데 누구를 보상의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도 결코 쉽사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보상금의 산정기준도 대출횟수, 소장책수,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도서관에서의 도서 이용과 관련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제시하기는 부족하다.<sup>2)</sup>

2) 이러한 실무적인 어려움을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는 이흥용과 김영석(2015)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3. 연구의 방법

도서관의 대출이 서점의 도서 판매를 감소시켜서 작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공공대출보상권의 근거를 이루는 핵심 가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주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은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작업의 첫 단계로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의 도서 판매 데이터를 실제로 비교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도서의 구매와 대출이라는 행위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이루어질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도서관의 대출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후 진행될 도서의 대출과 판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에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동안의 도서관 인기대출도서와 서점 베스트셀러의 목록을 비교·분석하여, 이들 사이의 차이점과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서관의 대출데이터는 도서관 정보나루(<https://www.data4library.kr> 2017.12.13. 접속)에서 제공하는 전국 660개 공공도서관의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인기대출도서 목록을 활용하였다. 서점의 데이터는 교보문고(<http://www.kyobobook.co.kr>)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베스트셀러 목록이 이용되

었다. 각각의 데이터에는 해당 연도의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가 200개씩 포함되었다. 도서관의 대출데이터에는 도서의 대출순위, 서명, 저자, 발행년, 가격, 분류번호, 대출빈도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 서점의 판매데이터는 도서관 데이터에 포함된 대부분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판매 부수는 제외되어 있어서 분석에 커다란 한계로 작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한계로 말미암아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할 수는 없었고, 각각의 데이터를 주제별, 발행연도별, 가격대별, 저작자의 국적별로 분석하고,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별 분류는 도서관과 서점이 서로 상이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서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고, 도서관 데이터를 서점의 분류 기준에 맞추어서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도서관의 분류기준인 KDC는 도서의 주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까닭에 도서 구매자나 독자의 연령층에 따른 함의를 찾아내기 어려운 반면에 서점의 분류기준은 독자의 연령층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어 도서의 대출과 구매 성향을 분석하는 데 서점의 기준이 더 유용하리라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도서관 대출데이터 전체와 서점의 판매 데이터 전체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연도별 상위 200개에 해당하는 표본으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의 대출과 서점에서의 도서 구매의 전체적인 양상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구의 결과가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에서의 판매 양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심지어 매우 작은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적

인 모습이 다소 왜곡될 수 있는 여지마저 없지 않다.

그렇지만 도서관과 서점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출과 판매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sup>3)</sup> 가장 많은 대출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도서가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차이와 유사점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의 전제를 구성하는 도서관이 서점의 도서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도서관의 대출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환기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 4. 연구 결과

### 4.1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와 서점의 베스트셀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서점에서 활발하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책들이 대체로 도서관에서의 대출도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이 분석의 시작이었다. 공공대출보상권의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에서의 도서 대출이 도서 구매에 대한 수요를 잠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도서관의 공공서비스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서관의 대출에 대해서 저작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공

공대출보상권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도서관의 대출이 도서 구매 수요를 대체한다는 가정 자체가 근거 없는 것이며,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하여 도서관의 대출에 대하여 작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이미 시장에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에게 보상금이 추가로 지불되어서 저작자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다. 그렇다면 실제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에서의 판매 현황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이 분석은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의 순위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표 1>은 2014년도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와 서점(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상위 10위를 정리한 것이다. 10위 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것은 『정글만리 1』,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3권뿐이고, 그 순위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200위까지의 순위와 목록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의 데이터에서도 모두 마찬가지로의 결과로 나타났다.

<표 2>는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 목록 상위 200위 가운데 양쪽 모두에 포함된 것을 집계한 것이다. 2014년에 38종, 2015년 37종, 2016년에 31종으로 총 600종 가운데 106종이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에 함께 목록을 올려서 17.7%만이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에 중복하여 포함된 것으

3) 이종엽(2011)에 의해서 도서관의 대출과 베스트셀러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경기도 내 몇 개 도서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만을 활용한 것이어서 전국의 660개 공공도서관의 데이터를 활용한 이 연구와는 구별이 된다.

〈표 1〉 2014년도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와 서점(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상위 10위

순위	인기대출도서		베스트셀러	
	서명	저자	서명	저자
1	정글만리 1	조정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2	정글만리 2	조정래	미 비포 유(Me Before You)	조조 모예스
3	정글만리 3	조정래	어떤 하루	신준모
4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정여울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감정수업(강신주의)	강신주
6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에드워드 틀레인의 신기한 여행 (하트우드1)	케이트 디카밀로
7	28	정유정	여자 없는 남자들	무라카미 하루키
8	7년의 밤	정유정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9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1cm+(일 센티 플러스)	김은주
10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정글만리 1	조정래

〈표 2〉 연도별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의 중복 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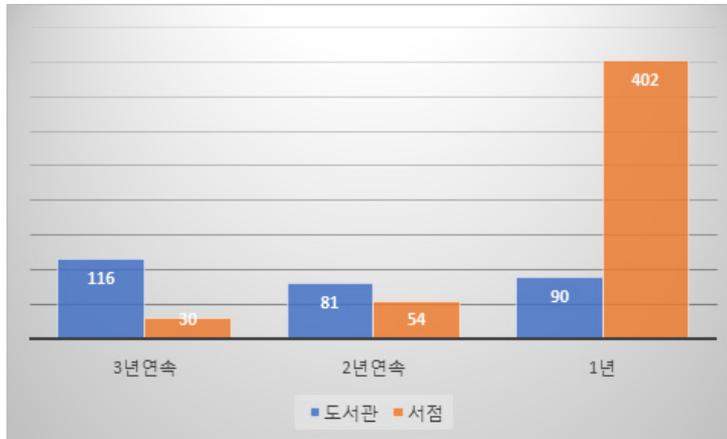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중 수	38	37	31	106
전체대비	19.0%	18.5%	15.5%	17.7%

로 조사되었다.<sup>4)</sup> 비록 상위 200개의 도서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에서의 대출행위와 서점에서의 도서 구매 행위가 각자의 고유한 영역과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한편 인기대출도서는 베스트셀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이용이 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1〉은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에 포함된 도서 가운데 연도별 포함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3년 연속 목록에 포함된 도서는 인기대출도서가 116종이고,

베스트셀러는 30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년 연속 목록에 포함된 것은 인기대출도서가 81종, 베스트셀러가 54종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만 목록에 포함된 도서는 인기대출도서가 90종, 베스트셀러가 402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이용자가 해당 도서에 대해서 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독서를 하는 반면에 서점의 도서 구매자는 비교적 발 빠르게 반응하지만 그만큼 관심이 빠른 속도로 사그라짐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발행연도가 경과된 지 비교적 오래된

4)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의 도서 판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종엽(2011)의 연구에서는 두 데이터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상관관계를 밝혀낸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 활용한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는 그 유사성이 매우 낮은 이질적인 데이터로 상관분석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연구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두 그룹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었다.



〈그림 1〉 인기대출도서 및 베스트셀러 연도별 포함 현황

도서가 서점에 비해서 도서관에서 더욱 꾸준하게 이용되는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발행연도별 분석에서 상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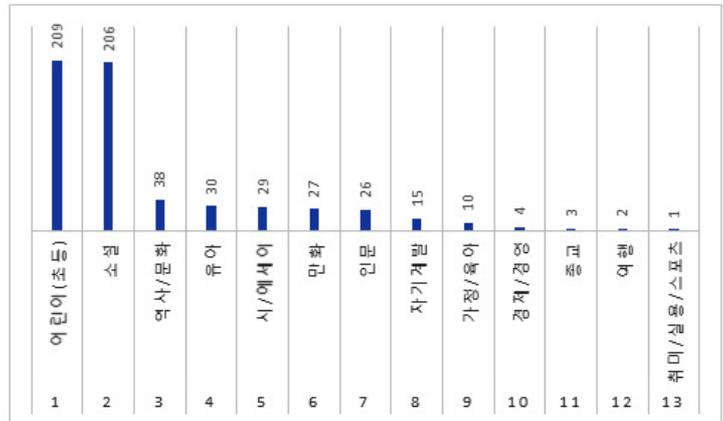
#### 4.2 주제별 분석

주제별 분석은 가장 많은 대출과 판매가 이루어진 도서가 어떤 주제 영역의 것이고, 어떤 독자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도서관의 분류체계가 순수한 주제 영역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서점의 분류체계는 주제영역과 독자의 연령대까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교보문고의 도서 분류 체계에 맞추어서 도서관과 서점의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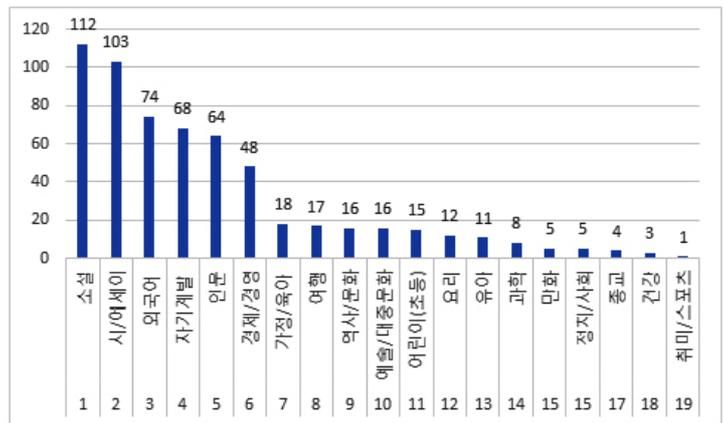
〈그림 2〉는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를 순위별로 정리한 것이다. 어린이(초등) 도서가 전체 600종 가운데 209종으로 인기대출도서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소설도 206권으로 인기대출도서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의

자료 대출이 특정한 영역과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문화나 유아(0-7세), 시/에세이, 만화, 인문이 30건 안팎으로 상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어린이(초등)과 소설과는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자기계발, 가정/육아, 경제/경영, 종교, 여행, 취미/실용/스포츠 분야의 도서도 인기대출도서로 포함되어 있으나 그 종수는 미미하다. 예술/대중문화, 요리, 과학, 외국어, 정치/사회, 건강 등의 분야는 도서관 인기대출도서로 지난 3년 동안 단 한 권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 3〉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의 연도별 베스트셀러를 주제별로 분석하여 순위별로 정리한 것이다. 소설이 112종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시/에세이가 103종, 외국어 74종, 자기계발 68종, 인문 64종으로 다음 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경영 48종, 가정/육아 18종, 여행 17종, 역사/문화와 예술/대중문화가 각각 16종, 어린이(초등) 15종, 요리 12종, 유아 11종, 과학 8종, 만화 5종, 정치/사회 5종, 종교 4종, 건강 3종, 취미/실용/스포츠 1종으로 그 후순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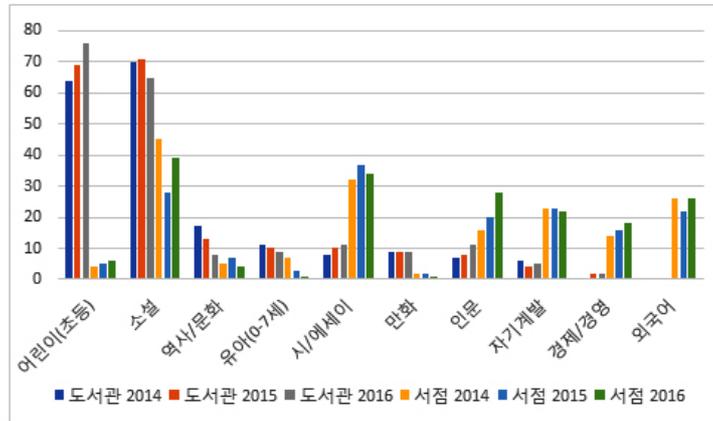
〈그림 2〉 인기대출도서 주제별 현황



〈그림 3〉 베스트셀러 주제별 현황

〈그림 4〉는 두 영역의 대출과 판매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조사 결과 도서관의 도서 대출과 서점의 도서 판매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의 주제별 순위는 어린이(초등), 소설, 역사/문화, 유아, 시/에세이, 만화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사뭇 다르게 서점의 베스트셀러 주제별 순위는 소설, 시/에세이, 외국어, 자기계발, 인문, 경제/경영의 순으로 구성되었

다.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초등) 도서는 서점 베스트셀러 가운데 고작 11위를 차지하고 있어 커다란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에는 전체 600개 가운데 1/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209건인 반면에 서점의 베스트셀러에는 15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설의 경우 도서관에서 2위, 서점에서 1위를 차지해서 모두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나, 도서관에



〈그림 4〉 주제별 대출과 판매 현황 비교

서는 206건으로 어린이(초등)와 마찬가지로 1/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서점 판매 도서 가운데 소설부문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서관 대출 도서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에세이 부문과 외국어 부문이다. 시/에세이 부문은 서점의 베스트셀러에서는 1위인 소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건수도 소설과 불과 몇 종 차이를 보이지 않는 103종에 이르고 있지만, 도서관에서는 29종에 불과해 인기대출도서의 주제별 순위 5위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어 부문의 경우에는 더욱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서점에서는 3위로 74종에 이르고 있지만, 도서관에서는 단 한 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어린이도서와 소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와는 달리 서점의 베스트셀러는 비교적 다양한 영역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는 총 19개 영역 가운데 13개만을 포함하고 있고, 실제로 그 대부분을 어린

이도서와 소설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서점의 베스트셀러에는 19개 부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기대출도서에 비해서 훨씬 고른 분포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독자가 도서에 대한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와 독자가 해당도서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독자적인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들이 부모의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면서 도서관의 어린이(초등) 부문 도서의 대출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은 도서관과 서점의 만화 부문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가 주된 독자층을 형성하는 만화가 도서관에서는 27종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서점에서는 5종으로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경제/경영 부문은 서점에서는 총 68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도서관의 경우에는 아예 한 권도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경제/경영 도서는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도서에 대한 충분한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연령대와 집단이 주로 이용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서점에서의 도서 구매자는 주로 그런 구매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의 집단으로 제한될 것이다. 반면에 도서관은 매우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의 정도가 상당히 희석되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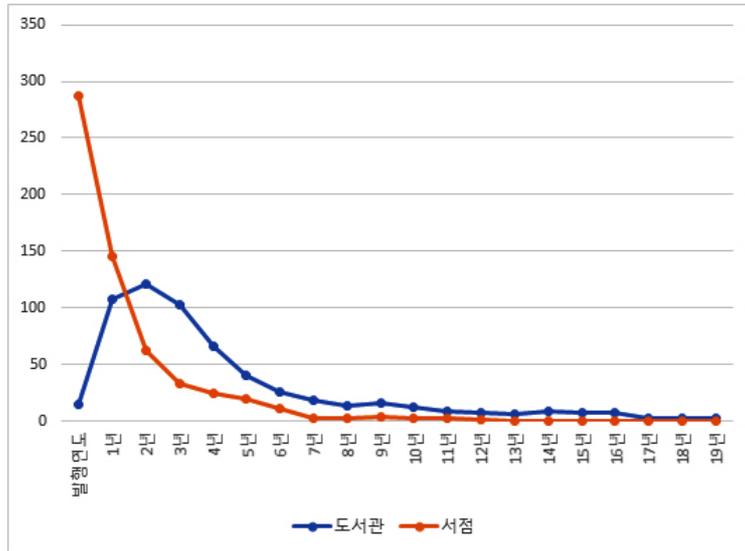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도서에 대한 구매력의 차이가 두 영역 간의 커다란 편차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중적으로 가장 커다란 파급력을 지닌 소설의 경우에 도서관과 서점에서 모두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점에서의 구매 비중에 비해서 도서관에서의 대출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설책은 그 내용을 한 번 읽는 것으로 충분하고, 두고두고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체로 강하기 때문에 서점에서보다 도서관에서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어린이(초등) 도서의 인기대출도서에 높은 순위와 베스트셀러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도 이러한 유추에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 가운데 하나이다. 어린이도서도 소설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한 번 읽는 것으로 독서행위가 완결되는 것으로, 도서를 장기간 보유할 필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은 시/에세이와 외국어 부문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의 차이에서 더욱 무게가 실린다.

시나 외국어 도서의 경우에는 한 차례 읽는 것으로 충분한 독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시는 소설과는 달리 몇 차례씩 음미하면서 두고두고 감상하는 것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외국어도서를 장기적으로 소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까닭 때문인지 도서관에서의 대출은 그리 높은 순위에 있지 않거나 아예 단 한 종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두 영역이 서점에서는 각각 2위와 3위의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도서의 장기 보유 필요성이 도서에 대한 구매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4.3 발행연도별 분석

발행연도별 분석은 발행 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도서의 판매나 대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각 도서를 발행연도별로 구분하여 발행 후 경과 연수에 따라서 분류하여 그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5>는 도서관과 서점 데이터의 발행연도를 분석하여 얻은 빈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은 해당 도서의 종수이고, 가로축은 발행연도 이후의 경과 기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서의 발행연도에 따른 대출과 판매는 상당히 다른 양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점의 판매는 도서가 출판된 바로 그 해를 정점으로 해서 점차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에, 도서관의 대출은 발행연도부터 점차 증가해서 발행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정점에 도달하



〈그림 5〉 발행 이후 연도별 도서의 대출과 판매 추이

고,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행 후 1년까지는 서점의 판매가 도서관의 대출을 앞서지만, 2년 이후부터 16년까지 지속적으로 도서관의 대출이 서점에서의 판매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3년 동안에 중복 포함된 도서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발행연도와 발행 후 1년이 경과되기까지 도서관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까닭에는 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하여 비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반영된 까닭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도서의 판매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에 도서관에서의 대출은 조금은 더 완만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훨씬 더 느리지만 지속적인

로 도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공공대출보상권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발행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도서관에서의 대출은 증가하는 반면에 서점에서의 판매는 감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도서관이 서점에서의 판매 수요를 잠식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도서관의 대출이 도서 판매 수요를 실제로 잠식하고 있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데이터만으로 도서관의 대출이 서점에 비해서 오래도록 유지되는 까닭이 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도서관이 모두 수용해서 도서 판매를 감소시키고 있는가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좀 더 많은 데이터와 다각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두 그룹 사이에

발생하는 연도별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면 공공 대출보상권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도서관의 대출이 도서의 판매 수요를 잠식해서 판매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 4.4 가격대별 분석

가격대별 분석은 도서의 가격이 대출과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도서관의 대출은 무료이기 때문에, 값비싼 책에 대한 구입을 회피하고 도서관을 통해서 대출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으리라는 가정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 대부분의 가격은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 모두 거의 2/3가 이 구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 출판 도서의 대부분이 이 구간의 가격으로 정가가 책정되는 까닭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기대출도서가 베스트셀러보다 아주 근소

한 차이로 이 구간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석의 결과는 가격이 도서를 대출할 것인지 또는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가격대별 분석의 결과는 15,000원을 초과하는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도서가 대출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구매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인기대출도서의 평균단가는 12,167원이 반면에 베스트셀러의 평균단가는 14,702원으로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의 평균 단가는 약 2,500원 정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에 포함되는 도서의 종류가 달라서 빚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기대출도서에는 어린이도서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에, 베스트셀러에는 어린이 도서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이 커다란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인기대출도서 가운데 어린이 도서의 단가는 10,902원으로 일반도서의 평균 단가에 비해서 1,265원이 더 낮은 것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다. 어린이 도서를 제외한 도서의



<그림 6> 가격대별 대출과 판매 비교 현황

〈표 3〉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의 평균 단가 비교

(단위: 원)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도서관	전체	12,037	12,179	12,286	12,167
	어린이	10,723	10,980	10,982	10,902
	어린이 제외	12,654	12,810	13,085	12,843
서점	전체	14,423	14,719	14,964	14,702
	어린이	10,475	10,020	9,800	10,053
	어린이 제외	14,504	14,839	15,123	14,821

평균단가도 인기대출도서와 비해서 베스트셀러가 약 2,000원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도서관의 대출이 비교적 저렴한 소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베스트셀러에서 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비교적 값이 비싼 다양한 영역의 도서가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서구매자가 도서관의 이용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커다란 구매력을 갖춘 집단이라는 점도 이러한 현상의 커다란 원인 가운데 하나일 듯하다. 도서관은 독립적인 구매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어린이나 유아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값이 저렴한 도서까지도 가능한 대출을 통해서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인기대출도서의 평균 단가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서점에서의 도서구매자는 일정한 수준의 구매력을 갖춘 사람인 까닭에 비교적 고가의 도서의 구입도 망설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독자의 연령층 또는 소득수준과 도서의 가격대와 주제별 영역에 따른 대출과 판매의 추이를 교차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교차분석과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표본

과 항목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의 구매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격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가격은 적어도 인기대출도서나 베스트셀러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 5. 논의

당초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공공대출보상권의 핵심적인 가설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연구를 위해서 분석한 데이터만으로 이러한 가정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증명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가설이 타당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도서관의 실제 대출 데이터와 서점의 도서 판매를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교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에서의 판매 양상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서관의 대출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른 양상에는 독자의 구매력과 도서에 대한 장기 보유의 필요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들이 서점의 구매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디게 반응하지만, 충분히 더 오랜 관심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다.

도서관과 서점의 이용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은 무엇보다 도서관이 보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까닭과 이들이 가진 구매력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어린이도서의 대출과 판매는 이러한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인기대출도서에서 가장 많은 종을 차지하는 어린이도서가 베스트셀러에서는 11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준다. 독자적인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들이 부모의 결정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유롭게 도서를 선택하고 읽을 수 있는 권리를 도서관이 보장해 주고 있음을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은 충분한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경제적 취약계층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서점과는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것이다. 도서관의 도서 대출은 이들에게 알 권리와 지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특특히 역할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부모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자

유롭게 책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은 지식의 자주성을 갖춘 건강한 차세대 시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은 단순히 서점의 판매 수요에 대한 대체재가 아니라, 경제적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시민의 알 권리와 지적 자유를 보장하는 고유의 역할을 오롯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밝혀진 부분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마도 도서관의 장기 보유 필요성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뜸들이기 현상’<sup>5)</sup>이 아닐까 생각된다.

도서관의 장기 보유 필요성은 도서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권재열(2013)이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대출은 중고의 책을 기껏해야 몇 주 정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까닭에 오랜 기간 동안 도서를 보유할 필요가 큰 시/에 세이와 외국어도서가 베스트셀러에 많은 종이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반복적인 독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 도서나 소설의 독자들은, 만일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도서를 구매했을까?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들이 새로운 구매 수요로 편입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연령과 계층의 대출자들이 새로운 구매 수요로 등

5) 베스트셀러는 발행년에 가장 많은 도서가 포함되고 발행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그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인기대출도서는 발행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 가장 많은 도서가 포함되고, 서점에 비해서 비교적 오랜 동안 그 목록이 유지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도서관의 대출이 원활해지는 현상을 편의상 ‘뜸들이기 현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장할 것인지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해당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대체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익을 감수하는 것은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는 도서를 구입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선택도 어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제공되던 상대적으로 낮은 편익이 사라졌을 때에는 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해당 도서의 구입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도서관의 대출자들이 도서관에서의 대출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도서를 구매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서관 대출에서 나타나는 '뜸들이기 현상'은, 도서관의 대출이 불가하더라도, 도서관 대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결국 도서의 구매에 나서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가정에 상당한 힘을 실어준다. 베스트셀러와 달리 인기대출도서에서 '뜸들이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커다란 이유는 도서관이 해당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도서를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반영된 까닭일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에 해당 도서가 비치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해당 도서를 대출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의 기다림은 필수이다. 오랜 기다림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이들이 '뜸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쉽게도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 그 정

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이 해당도서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결코 절박하지 않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해당도서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느린 호흡으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긴 기다림에 소요되는 시간들은 도서의 대출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익으로 만들어 버린다. 세간에 한참 화제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 도서에 접근할 수 없고, 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접근이 허락된다는 점은 공공도서관에서의 대출을 도서의 구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익으로 만든다. 이런 매우 낮은 편익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의 대출이 불가하다면, 자신들의 지갑을 열어서 해당 도서를 구매할 것이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긴 기다림의 시간과 '뜸들이기'는 해당 도서를 읽고자 하는 문화적인 의지는 있지만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도서를 구매하기는 망설이는 평범한 도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기나긴 '뜸들이기'는, 도서관의 대출이 불가하다면, 도서관의 대출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서의 구매자로 나서기 보다는 책읽기를 단념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해당 도서를 읽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것을 읽지 못한다고 해서 살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나 불편함은 없다고 자위하면서 훌훌 털고 일어서는 평범한 도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도서의 판매수요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비용으로 도서를 구매하지 않았을 사람들을 새로운 독자 수요로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서관이 도서의 구매 수요를 실제로 감소시키

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도서관은, 그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비용으로 책을 구매하기 어렵거나 구입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새로운 독서 수요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서 공공도서관은 아무런 비용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사회적 도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은 도서의 구매 수요를 잠식하는 단순한 대체재가 아니다. 부모의 간섭과 허락 없이도 원하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민주적 삶의 기회이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도서를 구매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평범한 소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작은 문화적인 복지의 하나일 뿐이다.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에 관한 논의는 작가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작가들의 어려운 형편을 사회가 나서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앞장서서 반대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작가의 어려운 경제 사정의 해결을 도서관의 대출과 연관 지어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도서관은 작가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적인 복지이다. 작가를 포함하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이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작가라는 지극히 한정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위협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온당한 시도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도서관의 대출에 대해서 작가들에게 보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책의 저술만으로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작가들의 후생에 보탬이 되기도 실제로 어려울 것이다. 자칫하면 어려운 형편의 작가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도서의 판매로 이미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작가들에게 제공되는 부수입 정도로 전락하고 말 위험마저 없지 않다. 작가들의 생계 보장의 필요성이 그 출발점이라면, 그 해결책도 마땅히 작가들의 복지와 후생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서 찾아야 한다. 이미 예술가들의 후생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은 기관이 만들어져 있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 않은가? 그 출발이 작가들의 어려운 생계에 대한 관심이라면, 마땅히 그 해결책은 예술인 복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6. 닫는 말

공공도서관의 대출에 대해서 공공대출보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시빅뉴스 2017.9.30; 오마이뉴스 2017.11.28.<sup>6)</sup>).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작곡가와 작사가들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것과 달리 도서관의 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6) 신문기사에는 '대여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로 인한 작가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도서의 판매가 감소하여 저작자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공공도서관이 도서를 대출하지 않았더라면, 그만큼 도서가 많이 판매되었으리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제가 실제로 타당한 것인가를 밝히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졌다.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와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의 크기가 매우 작고, 수집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의 도서 판매의 양상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도서관과 서점의 대출과 판매의 양상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여기에는 독자의 구매력과 도서의 장기 보유 필요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도서에 대한 장기 보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에세이나 외국어 도서는 서점에서 활발하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보유의 필요성이 낮은 어린이 도서나 소설 등의 경우에는 도서관을 보다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장기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는 소설이나 어린이 도서 등을 도서관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도서를 구입할 것인가를 밝혀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서점의 도서 판매와는 확연하게 구별

되는 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를 환기할 수 있었다. 도서관 이용자에게서 나타나는 “뜸들이기 현상”은 도서관이 도서의 판매 수요를 잠식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독서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도서를 구매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평범한 소시민들을, 도서관은 도서의 수요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 판매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서의 구매자가 되기 어렵거나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적 복지의 일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의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작가들의 어려운 생계를 보장할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작가들의 어려운 생계가 그 출발점이라면, 그 해결책은 도서관의 대출과 연결해서 찾기 보다는 예술가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그래야 작가들을 포함한 국민의 알 권리와 지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이유 없이 위축되는 불쌍 사나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작가들의 어려운 생계를 돕기 위해서 온 국민의 문화적인 권리를 축소해야 할, 도서관 서비스가 위협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와 명분을 찾기는 어렵다.

보다 큰 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의 도서 판매의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권재열. 2013. 이른바 '공공대출권'의 도입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고. 『법학 논총』, 20(1): 95-122.
- [2] 노래방 노래는 저작권료 꼬박꼬박 주면서 책은 왜 공짜로 빌려보나. 2017. 『시빅뉴스』. 9월 30일. [online] [cited 2017. 12. 30.]  
〈<http://www.civi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5>〉
- [3] 도서관 책 대출 때 저작권료 지불 둘러싸고 갑론을박. 2017. 『파이낸셜뉴스』. 3월 28일. [online] [cited 2017. 12. 28.] 〈<http://www.fnnews.com/news/201703281709573434>〉
- [4] 본인 책이 얼마나 대출되는지 궁금한 작가들: 어린이책 작가들이 대여저작권 찾기에 나선 이유. 2017. 『오마이뉴스』. 11월 28일. [online] [cited 2017. 12. 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9910](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9910)〉
- [5] 유미숙. 2002. 『전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제도의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6] 이순자. 1995. 공공대출권과 저작권. 『계간 저작권』, 32: 15-34.
- [7] 이종엽. 2011. 『베스트셀러와 도서관 대출과의 상관관계분석: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8] 이호신. 2002. 『인터넷 시대의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저작권법전공.
- [9] 이흥용, 김영석. 2015.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355-377.
- [10] 정현태. 2002.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운영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 19-35.
- [11] 최준란. 2017.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공대출권(PLR)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30: 181-197.
- [12]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 [online] [cited 2017. 12. 30.]  
〈<http://www.copyright.or.kr>〉
- [13] Cole, J. Y. 1983. "Public Lending Right: A Symposium at the Library of Congress." *LC Information Bulletin*, 42: 427-432.
- [14]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IFLA). *IFLA Homepage*. [online] [cited 2017. 12. 10.] 〈<http://www.ifla.org>〉
- [15] Public Lending Right (PLR) International. *PLR International Homepage*. [online] [cited 2017. 12. 10.] 〈<https://www.plrinternational.com>〉
- [16] Stave, T. 1981. "Public Lending Right: A History of the Idea." *Library Trends*, 29(4): 569-582.

- [17] 中瀬大樹. 2012. 『公立図書館における書籍の貸出が賣上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 修士論文, 政策研究大学院大學 知財プログラム .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on, Jae-Yeol. 2013. "A Law and Economics Approach to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 *Chosun law Journal*, 20(1): 95-122.
- [2] "Nolaebang Nolaeneun Jeojaggwonlyo Kkobagkkobag Jumyeonseo Chaeg-eun Wae Gongjialo Billyeobona." 2017. *Civic News*. September 30. [online] [cited 2017. 12. 30.]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5>>
- [3] "Doseogwan Chaeg Daechul ttae Jeojaggwonlyo Jibul Dulleossago Gablon-eulbag." 2017. *Financial News*. March 28. [online] [cited 2017. 12. 28.] <<http://www.fnnews.com/news/201703281709573434>>
- [4] "Bon-in Chaeg-i Eolmana Daechuldoeneunji Gung-geumhan Jaggadeul: Eolin-ichaeg Jaggadeul-i Daeyeojeojaggwon Chajgie Naseon Iyu." 2017. *OH My News*. November 28. [online] [cited 2017. 12. 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9910](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9910)>
- [5] Yu, Mi Suk. 2002. *A Study on Copyright Issues about the Digital Library and its Facilitation*. M.A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 [6] Lee, Soon-Ja. 1995. "Public Lending Right and Copyright." *Copyright Quartely*, 32: 15-34.
- [7] Lee, Jong Yup. 2011. *The Correlation Analysis of the Bestseller and the Most Frequently Circulated Books in Libraries: Focusing on a Public Library and an Academic Library*. Ph.D. diss., Department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 [8] Lee, Hosin. 2002. *A Study on Copyright Issue about Library in Internet Era*. M.A.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 [9] Lee, Heung Yong and Kim, Young-Seok. 2015.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 Syste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355-377.
- [10] Joung, Hyun-Tae. 2002. "An Overview and Countermeasure Study on the Remuneration System of Public Lending Righ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3(4): 19-35.
- [11] Choi, Junran. 2017. *A Study on Public Lending Right for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ultural Contents*, 30: 181-197.

- [12] Korea Copyright Commission. *Korea Copyright Commission Homepage*. [online] [cited 2017. 12. 30.] <<http://www.copyright.or.kr>>